

지오씨(주) 박인철 대표, 지스트에 발전기금 5천만 원 기탁

- 과학기술 발전 및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쾌척



▲ (왼쪽부터) 지스트 김기선 총장, 지오씨(주) 박인철 대표

지오씨(주) 박인철 대표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에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올해는 지스트에 GTMBA 원우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주)무진서비스 최은모 회장,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 (주)엔에이치네트웍스 이근신 대표, (유)수영아이엔지 황민선 대표, (주)우성정공 박화석 회장 등에 이어 지오씨(주) 박인철 대표가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

박인철 대표는 GTMBA(지스트 기술경영아카데미) 과정 5기를 수료한 지스트 동문이며, 광주 지역에서 우수한 케이블 생산 능력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광케이블제조 전문업체의 수장이다.

2001년에 설립된 지오씨(주)는 지스트 창업보육센터에서 광케이블 생산 아이템 창업으로 시작하여 2007년, 첨단 1지구에서 광케이블을 생산하면서 광주 광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등 3개 해외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동남아시아·북미·유럽 각지에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였다.

2015년부터 회사 전체 매출액 중 국내보다 해외 비중이 더 많았고, 첨단기술기업지정 및 코넥스 상장을 획득하였다. 2020년 이후, 700억 원이상의 급격한 매출 신장으로 2021년에는 대통령포상 및 대한민국 ICT 대상 해외 진출 우수기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박인철 대표는 “그동안 지스트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지스트를 통해 지역 내 창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리더들이 더 많이 탄생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스트 김기선 총장은 “GT MBA 동문들의 기부 릴레이에 동참해주어 박인철 대표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지스트가 국가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되어 글로벌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